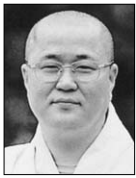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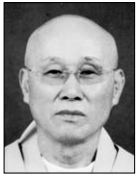


일주 문



정각원 토요법회 정기법행
동국대 정각원장 중호 스님은 서울캠퍼스 교내 정각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기 법회를 봉행한다.(02)2260-3016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수료
대한불교 해동종 중정 혜봉 스님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정을 수료하고 2월 25일 졸업했다.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단 단장 선임
최명준 불교방송 전무는 2월 22일 강화 법원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단 단장으로 재선임됐다.



불교특강 및 원호학당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은 3월 11~13일 '삼보(三寶)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새봄맞이 불교특강을 개최한다.(02)762-5624



동아 소설창작교실 개원
대진대 이상수 교수는 '동아 소설창작교실'을 개원하고 창작 및 합평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010-3364-1416



이상배 화백 문경에 작업실 오픈
한국문인화가 심전 이상배 화백이 경북 문경에 화실을 내고 작품활동과 후진 양성에 나섰다. 3월부터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에 강의한다.011-256-9524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 임명
김규철 前불교방송 사장은 2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5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도법스님 포스코 청암상 수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스님이 제2회 '2008 포스코청암상'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청암상은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 인재육성, 회생·봉사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봉사상·과학상·교육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관련 포스코청암상 시상 선정위원회는 "도법스님이 실천하고 있는 생명평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대안 교육은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은 2월 25일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패와 상금 2억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강진 기자

'오늘의 세계와 불교' 특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월 27일 '오늘의 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강연기 교수(전북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양형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신불사 장학금 전달식



울산 신불사(주지 혜성)는 2월 24일 신불사 법당에서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2004년 발족한 신불사 '자비회' 회원들이 월회비를 모아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했다. 주지 혜성 스님은 "불사활동은 밖으로 드러날 일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문학상에 정완영 정진규 오정희 장영우씨 선정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학상은 영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3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정완영(시조) 정진규(시) 오정희(소설) 장영우(평론)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정완영의 시조작품집 <정완영시조작품집>(도방 2006), 정진규의 시 '검질' (불교문예 2006년 가을호), 오정희의 장편소설 <세>(문학과 지성사 1996년), 장영우의 평론집 <거울과 벽>(시작 2007년) 등.
시조부문 수상자 정완영 선생은 "교과나무 굵은 가지가 없었더라면 허심한 밤하늘을 달이 가다가 어디 가서 쉴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겠는가. '교과나무 굵은 가지' 그게 내게 있어서 나의 시 너의 불

정완영 시를 찾아 헤메보니 그길에 불교 있어
정진규 용맹정진 길 허락받았음 스스로 확신
오정희 주어진 시간 문학 길로 가라는 격려로
장영우 초발심으로 정진하라 받아들이겠다
교였다"며 "시를 찾아 나선 세월이 올해로 60년, 시를 찾아 헤메다 보니 그 길에 불교가 기다리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부문 수상자 정진규 선생은 "선시일어(禪詩)一如라 할까, 그동안 나는 유현음(有絃吟)으로 또는 무현음(無絃吟)으로 그에 패 경도한 시편들을 노래 해 온 셈"이라며 "이 상을 계기로 용맹정진의 길 하 나는 허락받았음을 스스로 확신코자 한다"고 말했다.
소설부문의 오정희 선생은 "이 생에서 주어진 시간의 끝까지 성심껏 문학의 길을 가려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다"는 말로, 평론부문의 장영우 선생은 "초발심 그대로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수상의 기쁨

을 밝혔다.
제13회 현대불교문학상 심사에는 이근배 시인(심사위원장), 김재홍 교수(문학평론가·경희대), 신달자 교수(시인·명지전문대), 오세영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윤후명 소설가, 이상국 시인(만해마을은 영위위원장), 조경래 소설가, 최동호 교수(시인·고려대), 홍성만 시조시인 등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현대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는 2월 27일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을 발표하고 4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임연태 기자

동원 2008년 총회 개최 및 공로패 수여



사단법인 동원(이사장 지현)은 2월 22일 부산불교회관 4층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포교 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 동원 이사 장영 스님께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2008년에 더욱 노력하고 부처님의 법을 우리 불교문화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더욱 고심하고 성정하"며 동원 사무국과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장영 스님은 "공로패를 받은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여긴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성미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보살계 수계식 봉행



관음종 총림 서울불교문화대학은 2월 26일 낙산로각사 대불보전에서 2007학년도 불교학과 제1기 학위 수여식과 함께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총파 학장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는 데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33명이 졸업장 및 보살계첩을 받았다. 김주영 기자

은혜사 승가대학원 학위 수여식



은혜사 승가대학원은 2월 27일 제1기 졸업식 및 삼장가사 학위 수여식을 봉행했다. 수여식에는 봉선사 조소철 원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장정화 스님, 은혜사 주지 법다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큰 역량을 세워 불교종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덕산불교대학 졸업식



덕산정사(주지 해암) 덕산불교대학이 2월 24일 제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예천사암연합회 고문 지오 스님과 해동종 총무원장 혜원 스님, 태고종 영주분원장 진효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해암 스님은 "봉사를 짓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 부처님 기르침을 배워온 졸업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진 영주국장

백제불교문화대학 졸업법회



대전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사재동)이 2월 23일 제5회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1학년 수료생 77명과 2학년 졸업생 44명, 대학원 졸업생 24명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한대희씨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학 이사장상, 학장상, 대학원장상, 동문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한편, 대전백제불교문화대학은 3월 3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042)471-8214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금강불교대학 3회 졸업식



천대중 대성사(주지 도산) 부설 대구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이 2월 24일 제3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보통과정 수료자 82명, 고급과정 졸업자 70명이 배출됐다. 정산 스님은 "지식과 신앙심의 균형을 이취 지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금강불교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불교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

울산불교신도회 고태인 신임회장

"울산불교회관 건립과 불교방송 개국을 앞두고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하여 중요한 과제를 여법하게 이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불교신도회 신임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2월 27일 울산 문수컨벤션 센터 다이너스티홀에서 울산불교신도회는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거행했다. 19대 회장 고태인씨는 동민운수주식회사 대표인 울산불교실업인회의 대표 주자로 뽑혔다.
"취임하는 자리에 서니 솔직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선



다"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울산불교신도회를 이끌며 가꿀 사업에 대해 고 회장은 ▲봉축 행사 및 불교한정제 등을 통한 문화사업 ▲부처님 전법활동 등을 위한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한 수련회 개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중요 사업으로 뽑았다.
울산=하성미 기자

김봉석 변호사 법률사무실 열어

前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봉석 변호사가 2월 28일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사무실 'P&P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첫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에 임명돼 5년 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개업인사를 통해 "경륜이 초석이 되었던 종단 소임을 접고 보다 넓은 범법시를 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다"며 "총무원에서 세속법 및 종헌·종법과의 상관관계와 일반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사법의 어려움을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변호사가 개업하는



'P&P' 법률사무소는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봉석 변호사와 '연세대학교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연세대학교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출신의 이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함께 한다.(02)535-9994
여수령 기자

"찬불가 부르다 보면 신심 절로 생겨요"

익산 관음사 가릉빈가 합창단 문순복 신임회장

"합창단의 활동도 수행정진이며 봉사, 포교의 장이라 저는 믿습니다.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가꿀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2월 25일 익산 관음사 가릉빈가 합창단 신임 회장을 맡게 된 문순복 회장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매주 화요일 모여서 실천 같은 연습을 한다는 가릉빈가 합창단은 익산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합창단이다. 법회는 물론 각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합창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이다.
아름다운 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이제열 지휘자의 리드에 맞추어 실천



같은 연습이 이루어진다. 음성공양의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 하나가 성대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 자체이다.
합창단은 매주 일요일마다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행사, 그리고 지역대내외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합창단은 화합이 가장 중요합

"향만드는 것도 수행입니다"

천연 향 제품 개발한 향다원 청오 스님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끼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천을 누비며 사시사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땀과 찢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향다원 천연 향 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혜사에서 정각량 장시자인 고 승종 대 옹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 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신문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기사를 읽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심가지 아생천연재료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속 : 아카시아·박하·솔잎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

교단지정센터 정보관리국장 손상훈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지정센터는 2월 20일 정보관리국장 손상훈씨(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를 임명했다.
손상훈 국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것을 비롯해 2000년대를 여는 선재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북한북녘

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대책위원회,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조계종 포교사단 등에서 활동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같은 날 교단지정센터 소속 정보관리팀장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획팀장으로 보직 변경했다.
여수령 기자

니다. 화합 없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지요."
문 회장은 "관음사 원성 스님을 중심으로 합창단의 홍보에 노력해 합창단의 규모를 늘리고, 사찰 행사 뿐만 아니라 교도소 등 음성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동안 갖고 있던 화음을 5월에 열리는 불교합창제에서 선보이겠다고 했다.
조계종 전북지사장